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29.(월) 11:00, (지면) 2024. 7. 30.(화) 조간 배포 2024. 7. 29.(월) 06:00

해양수산 2030 자문단, 정책현장에서 젊은 아이디어를 더한다.

- 행안부 2030 자문단과 해양안전 교육 및 등대 체험 후 개선·홍보방안 제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30일(화) 전남 여수에서 해양수산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현장 체험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체험은 해양안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에서 생존수영,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을 체험하고, 해양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수 오동도 등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등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청년층이 생각하는 등대의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2030 자문단의 의견 중 참신하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자문단의 정책 현장 체험과 토론회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이창용 (044-200-5810)
<총괄>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록 (044-200-5829)
<협조>	항로표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참 고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오동도 등대 및 자료사진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해양안전 프로그램 체험
* 실제 2030 자문단이 체험하는 모습이 아닌
참고용 사진



오동도 등대



제1차 2030 자문단 토론회